

Theater Review

공연 비평

여름 한가운데의 탱고 - 「아디오스, 피아졸라」

서은희

1. 탱고 콘서트 가는 길

예술의 전당은 한여름에도 가기 좋은 곳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넓고 그늘이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하지만, 식당과 카페가 갖춰진 쇼핑몰 스타일의 지하통로를 이용하면 땀별을 찌지 않고 편히 이동할 수 있다. 푸른 우면산, 오래된 나무, 음악이 들리는 분수도 더위를 식혀주고 관객의 두근대는 마음을 반겨준다. 산책 나온 근처 주민의 모습도 흔히 보이는 여유로운 공간이다.

지난 7월 10일 일요일, 그런 공간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음악을 소개하는 탱고 콘서트 「아디오스, 피아졸라」가 열렸다. 공연이나 전시를 일일이 주제와 어울리는 계절과 공간에 위치시키기는 어렵거니와 꼭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경우에는 공연과 공연장 주변 환경이 서로 이질적이다 못해 대척점에 있었다. 탱고, 특히 피아졸라의 탱고 안에는 여유로운 기분, 가족의 웃는 얼굴, 이완된 마음, 맑은 하늘이 어울릴 자리가 없다. 이런 대조적인 분위기 덕분에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탱고 특유의 서정을 더 낮설고 생생하게 느낀 관객도 있었으리라.

사실 대부분의 라틴음악 장르에는 낙천적인 여유가 들어 있다. 살사의 여왕 셀리아 크루스는 웃고 울더라도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마음

Cuatrocientos
쿠아트로시엔토스

Maximiliano Cristiani
막시밀리아노 크리스티아니

Karina Colmeiro
카리나 콜메이로

ADIOS, PIAZZOLLA
아디오스, 피아졸라

2016. 7. 10^{SUN} 5:0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65,000 S45,000 A25,000 예매 SAC⁷ 16344 수 안티파크 STOMP STORE 주최 STOMP www.stompmusic.com 0212658-2546 f stomp classic i stompclassic

PROGRAM :

Libertango
Oblivion
Adios Nonino
Invierno Porteno 외 다수의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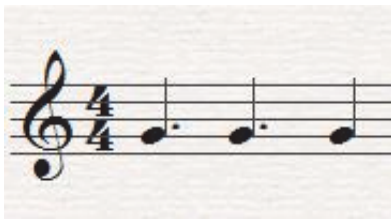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디오스, 피아졸라」 공연 포스터 (출처: <http://stompmusic.com>)

넓은 노래를 뜨겁게 불렀다. 삼바는 빠른 박자로 최대한 끌어올린 기쁨과 흥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장르이며, 콰비아의 명랑한 리듬은 첫 박자가 묵

음이라 아예 시작부터 잠깐 쉬어간다는 묘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장르와 탱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 첫째는 탱고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즐거움이 아니라 설움이라는 점이다. 민속적인 대중음악으로 출발한 예전의 탱고(tango viejo)에서도,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피아줄라가 개척하고 세계화한 새로운 탱고(nuevo tango)에서도 그렇다. 그리스 비극처럼 위대한 영웅이 맞서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힘겹게 노동해야 하고, 고독을 견뎌야 하고, 늙고 죽어가며 이별한다는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이다. 다른 장르에 비해 장조가 아닌 단조가 많이 쓰이는 이유도 그런 정조 때문이리라. 탱고가 특히 가난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발전해 간 음악임을 생각하면 필연적인 특징으로 보이기도 한다.



탱고의 기본 리듬인 당김음 (출처: <https://en.wikipedia.org>)

둘째 특징은 긴장감이다. 애조와 긴장감이라는 독특한 조합이 탱고만의 분위기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음악에서 당김음은 중요한 요소지만 탱고에서는 특히 많이 쓰인다. 당김음이란, 간단히 말해 강세가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난 곳에 떨어지면서 강박과 약

박의 역할이 바뀌고 리듬이 변화하는 것이다. 탱고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기에 청중은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리듬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런 ‘밀당’이 야기하는 관능적인 긴장감에 몸을 맡기게 된다. 초창기의 탱고 음악은 격렬한 춤에 맞춰가면서 진화했는데, 가장 에로틱한 춤이었기에 음악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던 특징이 바로 이 긴장감 아닐까. 실제로 탱고를 추는 두 댄서 사이에는 서로 끌리면서도 다가서기는 망설이는 듯한 팽팽한 긴장이 감도니까 말이다.

말하자면 슬픈 내용과 긴장감을 주는 형식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예술이 탱고인 것이다. 슬픔은 타인을 끌어당긴다는, 보편적인 정서를 생각해 보면 이 장르의 출현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측면에서 보든, 평화로운 여름 주말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우리가 감상한 공연은 기실 이렇게도 평화와 여유

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2. 피아졸라의 탱고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등 항구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잉태되고, 20세기 초반 무렵 음악 장르로서 형식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음악가를 끌어들이며 마침내 카를로스 가르델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탱고는, 20세기 중반에 아르헨티나의 아스토르 피아졸라라는 강력한 천재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가 관람한 공연의 제목 「아디오스, 피아졸라」는 ‘안녕, 피아졸라’라는 의미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테마곡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아디오스 노니노」(Adiós Nonino)의 제목을 바꾼 것이다. 참고로 ‘아디오스 노니노’의 ‘노니노’는 피아졸라의 아버지의 애칭이며, 이 곡은 아버지를 애도하는 슬픈 곡이다.

탱고 음악의 역사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 피아졸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탱고곡은 피아졸라의 작품이 아니라, 예전에는 1916년에 우루과이 작곡가 헤라르도 마토스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라 콤파르시타」였고,¹⁾ 최근에는 탱고의 거장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하고 영화 「여인의 향기」로 널리 알려진 「포르 우나 카베사」일 것이다.²⁾ 우리가 관람한 공연에서도 앵콜곡은 피아졸라의 곡이 아니라 「포르 우나 카베사」였다는 점 역시 이 곡이 큰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다. 듣는 이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아름다운 곡임이 분명하지만, 1935년에 가르델이 부르고 녹음한 원곡과 1992년에 영화에 사용된 편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두 시대의 기술력의 격차와 보컬과 연주곡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자의 소박함과 후자의 스케일과 세련미는 대조적이다.

이 차이에서 피아졸라 이전과 이후의 탱고의 차이를 대강이나마 상상

1) 라 콤파르시타(La cumparsita)는 축제 때 벌이는 ‘가장행렬’이라는 뜻이다.

2) 포르 우나 카베사(Por una cabeza)는 경마장에서 쓰는 용어로, ‘말머리 하나 차이로’, 즉 ‘간발의 차이로’라는 의미다.

해볼 수 있다. 피아졸라는 1990년 69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기 직전까지 평생 동안 왕성하게 창작하고 연주하며 탱고를 단순한 대중음악에서 섬세하고 복잡하며 감정적으로도 더욱 격렬한 무언가로 변신시켰고, 그 이후로 탱고는 피아졸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피아졸라의 혁신이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환영은 커녕 순수한 탱고를 망치는 위험인물이라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원성을 샀고, 소수의 급진 자유파는 정치적 혁명에 비유할 정도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유럽과 북미에서 새로운 탱고의 지지 세력이 일어나 점차 세계로 번져갔지만 말이다.

피아졸라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하여 뉴욕의 재즈를 들으며 자랐고, 한때 진심으로 탱고를 버리고 클래식 음악을 진로로 삼았을 정도로 클래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런 피아졸라가 이뤄낸 혁신은 전통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의 기법을 가미하여 독창적인 스타일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특히 17-18세기의 바로크 음악에서는 대위법, 즉 서로 다른 멜로디를 함께 진행시키는 기법을 빌려왔고, 재즈로부터는 각 연주자의 개성을 살린 즉흥 연주를 받아들였다. 한편 피아졸라는 작곡가일 뿐 아니라 ‘탁월한’이라는 형용사를 꼭 붙일 정도로 뛰어난 반도네온 연주자였기에, 직접 무대에 서서 동시대의 청중과 교감한 결과를 그때그때 작곡



쿠아트로시엔토스 (출처: <http://stompmusic.com>)

에 반영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탱고 애호가에게는 더 미움을 산 반면, 클래식과 재즈 팬은 피아졸라의 새로운 탱고를 환호했다.

3. 콘서트 「아디오스, 피아졸라」 - 음악, 춤, 아쉬운 부분

이번 공연에서 연주곡은 「리베르탕고」(Libertango), 「망각」(Oblivion), 「안녕히 노니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Invierno porteño), 「위대한 탱고」(Le grand tango) 등이었고, 가수가 부르는 탱고 노래(tango canción)는 「길 잃은 새들」(Los pájaros perdidos), 「바친의 꼬마 소년」(Chiquilín de Bachín) 등 피아졸라의 대표작 여러 곡이 무대에 올랐다.

연주자들은 탱고 팬들 사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일본의 탱고 4중주 밴드 쿼트로시엔토스(Cuatrocientos)였다. 이는 400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데, 네 명이 각각 100퍼센트의 기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연주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특히 기타무라 사토시의 반도네온은 전문가가 아닌 관객의 귀에도 빼어나게 들렸다. 우수에 젖었지만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 반도네온 연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밀롱가에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네 사람 모두 상대적으로 젊은 연주자로 일본은 물론 본토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몇 차례 공연한 바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탱고가 아주 낯선 음악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의 영향으로 라틴음악과 춤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왔고, 고상지 같은 반도네온 연주자도 언론을 통해 차차 유명세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발적 현상을 넘어서 라틴음악이 하나의 흐름으로 완전히 정착했고, 탱고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면서 아시아 라틴음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서울재즈페스티벌에 초대받은 살사 밴드 살사 스윙고사(Salsa Swingoza), 살사 싱어 차카(Chaka) 등도 국제적 팬을 확보한 일본의 라틴음악가들이다.

이번 공연의 장점 한 가지는 연주곡뿐 아니라 노래로 부르는 탱고, 그

리고 약간의 탱고 댄스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다 모모코는 「길 잃은 새들」과 「바친의 꼬마 소년」 두 곡을 직접 불렀다. 전문 가수가 아니기에 서투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 여러 관객의 의견이었지만, 어찌 보면 오히려 이런 점이 탱고의 기원에 가까운 매력일 수도 있다.



반도네온 (출처: <http://www.accordions.it>)

탱고는 1920년경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서 파리로 건너가서 성공을 거뒀고, 유럽의 상류사회에서 이 빠르고 어렵고 관능적인 춤을 배우는 열풍이 불었으며, 그 영향으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도 상류층의 고급 문화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본디 탱고는 근사한 무도회장이나 살롱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잖은가. 앞에서 말했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지역에서 생겨났고,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피아졸라 이전) 아르헨티나 구석구석 어디서든 들을 수 있던 대중음악이었다. 가사와 곡에 담긴 정서, 접근성, 즐기는 세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문화에 비유하자면 트로트 정도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탱고 전문 라디오 채널을 통해 하루 종일 20세기 초중반에 부르던 노래가 반복해서 흘러나온다. 수준 높은 연주거나 전문 가수가 독점하는 장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서민적인 즐길거리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연에서 들려준 노래는 ‘세계화’되고 세련된 탱고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적’인 탱고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청중을 감탄시키지만 다가갈 수 없는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잘 몰라도 흥얼거리며 따라할 수 있는 친숙한 음악으로서 말이다.

탱고 밴드와 댄서들이 함께 라이브로 협연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의미가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댄스는 작은 홀이나 바, 심지어 길모퉁이에서도 흔히 보인다. 노래가 대중에게 친숙하듯이 본디 공연자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운 예술인 것이다. 그래서 크고 먼 무대에 올려진 탱고 댄스는 그런 긴장감의 밀접한 체험과는 거리가 있었다. 댄서들은 다소 과장

되지만 멋진 무대 매너를 보여주면서 마임을 하듯 관객을 웃기기도,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화려하고 강렬한 춤이었으나 쇼(show)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조금 안타까웠다. ‘다리 사이의 전쟁’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이듯, 탱고 댄스는 두 사람의 교차하는 스텝 사이로 서로 도전하는 듯한 긴장과 에로티즘, 혹은 유혹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는 슬픔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다거나 과감하게 점프하는 모습 등 아크로바틱(acrobatic)한 장면을 보여주기에 집중하는 듯했다. 물론 훌륭한 춤이었기에 그들의 의도는 성과를 보았고, 관객은 환호하고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그러나 피아졸라의 작품에 좀 더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를 바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덜 화려하더라도 「아디오스 노니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 「망각」 등으로 이어오던 분위기를 살리는 춤이었더라면 피아졸라의 작품세계를 재현하는 흐름을 도왔을 것이다. 밴드 연주와 춤의 단순한 협연이라는 시도를 넘어서 전체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공연을 기대해 본다.

현대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인 피아졸라를 테마로 하여 노래, 음악, 춤을 조화시켜 탱고의 여러 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공연은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적고자 한다. 일본의 탱고 밴드와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온 탱고 댄서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댄서 캐스팅이 홍보물과는 달랐다. 또한 밴드와 댄서 커플의 협연으로 진행된 2부는 공연의 구성이 잘 짜였다고보다는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다소 어수선한 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장 밖에 비치된 홍보물에는 몇몇 연주 곡명을 나열하고 ‘그 외 다수’라고 표기되어 있어, 아주 유명한 곡을 제외하고는 연주 곡명을 알기 어려웠다. 한국 관객에게 탱고는 아직 낯선 점이 많은 장르인 만큼, 관객에게 프로그램 구성 목적과 진행 방식, 연주 곡명과 연주 순서 등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사려 깊은 소개가 필요하다.

4. 이런저런 탱고 상식



1904년 강물에서 탱고를 추는 남자들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

탱고를 둘러싼 재미있는 사실도 떠오른다. 탱고를 생각하면 아르헨티나 말고 떠오르는 또 다른 나라는 우루과이다. 아르헨티나 옆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나라는 인구구성이나 문화에서 아르헨티나와 공통점이 많다. 그 중 하나가 탱고를 즐긴다는 점이다. 우루과이 사람들은 탱고를 대중화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이지만 탱고가 진정 태어난 곳은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세계화된 탱고의 종주국 칭호를 둘러싸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벌이는 신경전도 흥미로운 면모다.

또 이 관능적인 춤은 본디 남녀가 아니라 남자끼리 추는 춤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19세기 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유럽 각지의 노동자, 특히 많은 이탈리아인이 이주했는데, 이런 이민자의 절대 다수가 부두에서 일하는 남자였다. 그 때문인지 남자끼리 고된 노동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며 술집의 마룻바닥 위에서 탱고를 추기 시작했다고 기록한 문헌과 사진 등이 남아 있다. 오늘날 주류 탱고에서는 성역할이 명확히 나뉘지만, 동시에 퀴어 탱고(Tango Queer)라 불리는 동성 댄서간의 탱고도 어엿이 존재한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1998년 영화 「탱고」에 등장하는 두 남자 무용수간의 격렬한 퓨전 탱고 장면은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탱고가 유럽에서 한창 유행하던

1920년대 전후에 세계 여러 곳에서 여자들끼리 탱고를 추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도 있다. 충분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면 탱고의 호모에로틱(homoerotic)한 면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적 요소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탱고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겐 배우기 쉬운 춤일까?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살사 열풍이 불어 동호회도 많이 생겨났고, 이제 강남이나 홍대 등지에는 살사바도 많다. 주변의 스페인 어권 전공자들 여럿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춤의 기본 동작과 스텝을 연마하던 추억도 있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에 가서 놀라웠던 점은, 현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외워서 추던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것이었다. 살사, 메렝게, 바차타 등, 굳이 외워가며 배우지 않아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리듬을 일상 속에서 체득한다. 하지만 조금 고소하게도 탱고는 예외다. 아르헨티나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자신은 탱고를 추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탱고를 추고 싶으면 학원을 다니거나 교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탱고는 전지구적으로 어려운 춤이 맞는 것이다.

한국에서 탱고를 좀 더 가까이 듣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물론 인터넷에서 다양한 탱고 음악, 영화, 레슨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공연에서 연주된 곡은 모두 유튜브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탱고 댄스 동호회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차근차근 배워가며 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만약 ‘금강산도 식후경’이 내 스타일이라면, 아르헨티나식 바베큐인 파리야다(parillada)로 저녁식사를 즐기며 탱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식당도 서울에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공연을 보고 나니 다른 악기를 버리고 반도네온을 배우고 싶어졌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에서 반도네온을 배우는 것은 희망사항일까? 좋은 수업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필자에게도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서은희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